

그리운 남쪽바다 합포만

조성래 | 시인



산호공원 정상에서 내려다본 <가고파>의 남쪽바다 전경

남쪽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곡 <가고파>. 국민이 사랑하는 명곡 <가고파>의 현장을 찬찬히 음미하기 위해 마산시 산호공원, 합포만 안에 있는 해상유원지 돌섬을 들르고, 고향의 맛으로 유명한 마산의 이구찜도 맛본다.

가곡 <가고파>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 오늘은 다 무얼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 나는 왜 어이다가 떠나살게 되었는고 /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웃고 지내고자 /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 김동진 작곡, 이은상 지음 -



〈가고파〉 노래비

산호공원에 올라

가곡 〈가고파〉에는 남쪽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다. 그것은 파랗게 채색된 잔잔한 고향바다로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객지 생활하는 이는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파란 남쪽바다의 향수에 흠뻑 젖게 된다. 그만큼 이 노래는 일반 국민이 사랑하는 명곡이다.

〈가고파〉의 현장을 찬찬히 음미하기 위해 우선 마산시 산호공원부터 오르기로 했다. 장마 뒤의 날씨가 꽤 무더웠지만 공원의 포장도로를 걸어 오르는 일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잘 다듬어진 수목들 사이로 한적한 길을 곱어 돌자 이내 시의 거리가 나온다. 이 고장 출신 작곡시인들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다. 마산시에서 1990년에 조성한 것이다. 물론 〈가고파〉의 노래비도 이곳 윗자리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의 거리가 조성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에 건립된 것이다.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품격 높은 대접을 받아왔다.

〈가고파〉의 노래비는 네 폭 병풍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노랫말이 세로로 새겨져 있어 펍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진다. 노래비에는 다 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맞춤법은 비문 그대로임).

수목 사이로 보이는 〈가고파〉의 푸른 물.
합포만의 수면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가고파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 가고파 //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 오늘은 다 무얼 하시고 보고파라 보고파 //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 나는 왜 어이다가 떠나살게 되었는고 /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 가서 한 데 열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웃고 지내고자 /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 물 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달음질 치고 / 물 들면 뱃장에 누워 별 헤다 잠 들었지 / 세상 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 여기 물어 보고 저기가 알아보나 / 내 뉘엔 즐거움은 아무 데도 없는 것을 / 두고 온 내 보금자리에 가 안기자 가 안겨 // 처녀들 어미 되고 동자들 아버지 된 사이 / 인생의 가는 길이 나뉘어 이렇구나 / 잃어진 내 기쁨의 길이 아까와라 아까와 // 일하여 시름 없고 단잠 들어 쉼 없는 몸이 / 그 바다 물소리를 밤낮에 듣는구나 /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부러워라 부러워 // 옛 동무 노 젓는 배에 얻어 올라 치를 잡고 / 한 바다 물을 따라 나명들명 살까이나 / 맛잡고 그물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 거기 아침은 오고 또 거기 석양은 저도 / 찬 얼음 센 바람은 들지 못하는 그 나라로 / 돌아가 알몸으로 살까나 깨끗이도 깨끗이

1932년 1월 5일 이은상 지음



전체가 10연으로 된 정형시이다. 상당히 긴 작품인데, 앞의 4연이 노랫말로써 우리의 귀에 익은 부분이다. 창작 이듬해인 1933년에 숭실전문 2학년 학생이었던 김동진이 작곡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정성 짙은 시구를 마음에 새기며 노래비 곁에 앉았노라니 어느덧 흥얼흥얼 노래가 흘러나온다. 노래비 주변에는 생수 받으러 온 사람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했다. 걷기운동하는 시민들도 간혹 있었으나 그들은 그냥 빨리 지나칠 뿐이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곳 산호공원을 용마공원, 또는 옛날식으로 그냥 용마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맑은 시냇물을 키우며 산책하기에 알맞은 장소라서 시나브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만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다.

노래비 위치에서 행여 바다가 보일까 싶어 목을 뽑아 보았지만 어림없는 일이었다. 산등성이가 약간 꺼진 부분이라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하기가 그 정도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산호공원을 오르기 전에 이미 <가고파>의 '파란 물'을 조망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나름대로 정해 놓고 있던 터이다. 그 곳은 노래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산호공원 정상이다.

이마의 땀을 식힌 나는 다시 천천히 걸어 산호공원 정상으로 향했다. 해발 84m인 정상에는 철탑 하나만 서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민머리로 벗겨진 그 곳 주변에는 못생긴 풀들이 더위에 지쳐 있었다. 거기에 올라서니 드디어 마산의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서슴지 않고 정상의 남쪽 끝머리에 있는 바위에 올라섰다. 그 장소야 아마로 <가고파>의 남쪽바다를 내려다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

아아,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 언제 봐도 고요한 남쪽바다 파란 물이 마침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땅의 술한 사람들이 것처럼 그리워하는 <가고파>의 바다였다. 비록 매립지의 고층 아파트들에 가려 옛 정취를 많이 잃었다 해도, 산업화에 의해 청정함을 다소 상실했다 해도, 그것은

아아,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 언제 봐도 고요한 남쪽바다 파란 물이 마침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땅의 술한 사람들이 것처럼 그리워하는 <가고파>의 바다였다.

여전히 울림 깊은 음률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적 시기에 충분했다.

산호공원 정상에서 정면으로 내려다보면 합포만은 폭이 좁은 편이다. 바로 건너편의 나직한 산들이 바다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것은 호수처럼 느껴지기 일쑤다. 그러나 눈길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득한 포구 쪽의 물길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어, 고향의 정다움을 키워주기에 알맞은 크기의 바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움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도 친밀감이 약해져 애뜻한 정감을 이어가기 어렵다. <가고파>의 대상인 남쪽바다는 공간적으로 이쯤의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물론 정서적 거리로만 친다면 그 거리가 더 멀어도 상관없으리라.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 판단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은상의 노랫말이 <가고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만 해도 <그 집 앞> <동무 생각> <그리워> <옛 동산에 올라> <장안사> 등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파>가 가장 애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남쪽바다 그 파란 물'이 만들어내는 아련한 이미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간의 구체성,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마련해둔 데 있을 듯싶다.

때마침 조그만 배 한 척이 물고기처럼 지느러미를 흔들며 포구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있었다. 뱃머리에서 갈라지는 고요한 물무늬가 합포만에 잔잔한 주름살로 새겨지고 있었다. 항구는



푸른 물결 너머
떠 있는 돌섬. 마치
수반에 올려놓은
이끼 낀 수석처럼
양증맞다.



해상유원지 돌섬
가는 여객선

모성애로 그 모든 움직임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도 말이 없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팬파이
프의 음울 같은 물무늬가 일어나는 듯싶었다. 적
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것은 참 정답고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돌섬 해상유원지

이제 합포만 안에 떠 있는 해상유원지 돌섬으로
갈 차례다. 돌섬은 마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약
1.4km 지점에 있다. 그 위치는 합포만 입구 중
앙에 해당된다. 그래서 돌섬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수반에 올려놓은 이끼 낀 수석처럼 양증맞
다. 이 곳에서는 합포만의 내향과 포구 쪽을 두
루 돌아볼 수 있어 그 풍치가 최상급이다. 여객
터미널에서 오천 원을 지불하면 왕복 배삐와 입
장료가 한꺼번에 해결되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돼지의 옛말인 “돌”을 따서 만든 이름 “돌섬”
에는 전설이 있다.

옛날 가락국의 어떤 왕으로부터 충애를 받고 있

던 한 미희(美姬)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미희가 마
귀에게 홀려 궁중을 떠나 마산 앞바다를 배회하게
되었다. 신하들이 그녀를 찾아가 궁중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자 갑자기 금돼지로 변해서 두척산(지
금의 무학산)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후 금돼지는 다시 맹수로 변해 나타났다. 병사
들이 포위해 잡으려 하자 맹수는 오색찬란한 한 줄
기 빛이 되어 지금의 돌섬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섬은 누운 돼지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섬으로 자취를 감춘 미희는 돼지 울음소리를 내고
해피한 광채를 뽐으며 계속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치원 선생이 미희를 위
해 제를 지내 주었다. 그러자 돼지 울음과 해피한
광채가 잠잠해졌다.

이처럼 재미있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돌섬
에는 현재 놀이기구, 사슴 목장, 야외 서커스장,
모텔 등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섬
정상에는 ‘가고파탑’이 있다. 그러나 연인끼리라
면 해안 일주로를 따라 산책하는 것이 제격이다.

막 여름방학이 시작된 뒤라 그런지 여객터미
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
았다. 대개 반바지 차림인 그들은 아예 돌섬에서
하루를 보낼 모양인지 먹을거리와 물놀이기구를
잔뜩 챙겨들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낚시
도구까지 메고 가기도 했다.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뱃시간을 기다
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연신 살갓을 간질렸다.
바로 창 너머에는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었다.

탐승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라 터미널 밖으로
나가니 깨끗한 선착장이 잇대어 있었다. 그리고
잔잔한 바다 저쪽에 돌섬이 손에 잡힐 듯 떠 있
었다. 북적대는 피서객들 틈에 끼여 나도 배에
올랐다. 배의 앞머리에는 ‘돌섬가고파랜드’라는
이름이 로그자로 크게 쓰여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선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는 <가고파>가 아닌
‘당신은 바보야’, ‘내 사랑 춘자야’ 등이어서 실
소를 금할 수 없었다. <가고파>를 한 번쯤 들려
준 뒤에 그러한 대중가요를 즐기게 하든지, 아니

면 대중가요를 선택하더라도 좀 조용한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섬으로 향하는 유람선의 고물에 붙어서서 마산항을 바라보니 과거 산업화 시절에 비해 많이 정화된 느낌이었다. 매립지인 바닷가에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 앞의 바닷물도 상당히 맑아 보였다. 한때 바닷물이 극심하게 오염되었던 당시에는 정말이지 <가고파>의 '파란 물'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었다. 한국인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그 아름다운 영상을 모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죽어가는 바다에서 '이따이 이따이 (아프다 아프다)' 소리가 들린다고 이선관 시인이 통탄했겠는가. 물론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진다면 머지 않아 <가고파>의 옛날 모습을 되찾으리라 믿는다.

벚전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무학산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 사이 배는 벌써 돌섬에 도착해 있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생각보다 한산했다. 이쪽 선착장 부근에 인공 시설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난잡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카페나 음식점들이 대개 <가고파>라는 이름을 달고

동심으로 돌아간
강태공들

아아,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 언제 봐도 고요한 남쪽바다 파란 물이 마침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땅의 순한 사람들이 것처럼 그리워하는 <가고파>의 바다였다.

있어 이 아름다운 가곡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하고 보면 <가고파>는 이 고장의 문화상품으로 보통명사화된 지 이미 오래이다.

선착장에 내린 사람들은 제각기 취향대로 여가저기 흠어지기 시작했다. 가족팀은 애들의 손에 이끌려 놀이시설로, 연인들은 다정하게 물가로, 단체관광객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음식점으로 몰려갔다. 나처럼 바쁠 것 없는 사람은 그냥 섬의 일주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해조음을 음미하면 된다.

음식점 거리를 지나 원편 학카페 가는 길로 접어들니 수목이 울창했다. 이런 곳은 한적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나무들의 향기가 은은해서 걷기에 참 좋다. 어느덧 내 몸에도 숲의 냉기가 조금씩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계속 걸어 들어가니 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가고파문화센터를
찾는 청소년들

직임만큼 평화로운 게 또 있을까. 자연스럽게
〈가고파〉의 한 구절이 연상되었다.

물 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달음질 치고
물 들면 뱃장에 누워 별 헤다 잠 들었지
세상 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카페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나는 바닷가 나무 사이로 이어진 산책길을 따라 다시 걸었다. 발 아래에서는 연신 바닷물이 모래톱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굽어 돌아간 길에는 군데군데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바다와 동화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이 산책로에서 마산항 안을 바라보면 산호공원에서 보던 것과 달리 매우 넓게 트여 있다. 호면처럼 잔잔한 물이 내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책로가 〈가고파〉의 현장을 접할 수 있는 절정의 공간이다.

간혹 산책객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서로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냥 인생의 오솔길에서 잠시 조우한, 소중한 인연이라 여겨졌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수면이 거울처럼 환하게 내면을 비춰주곤 했다. 환히 비쳐 들어오는 수면의 공간 감은 마음을 자꾸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참으로 고요한 산책로였다.

일주로를 거의 돌아 나와 모텔 부근에 이르면 큰 해송들이 많다. 그리고 해송들의 가지 사이로 포구 쪽의 물길이 아득하게 보인다. 양쪽에 푸른 산들이 이어져 있어 아주 시원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쯤에 도착하면 〈가고파〉의 바다를 거의 다 본 셈이 된다. 대충 섬을 한 바퀴 도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만큼 작은 섬이다.

다시 선착장 부근으로 돌아오니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매점마다 피서객들이 앉아 병과류를 물고 있고 음식점에선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서커스 공연이 준비되는지 사람들이 몰려가며 시끌벅적했다. 음식점에 들러 간단히 동동주와 파전을 시

원한 느티나무 아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수목들 사이로 고요한 바다가 엿보이고 이따금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다.

거기서부터는 바다로 가는 내리막길이었다. 통나무를 얹게 잘라 박아놓은 아담한 계단이 나오고 곧바로 카페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는 바닷물이 넘실거렸다. 카페에서 칵테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 기웃거렸지만 아직 문이 닫힌 상태였다. 시원한 미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카페 앞의 의자에 주인인 양 앉아 합포만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바다는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었다. 갯바닥이 차츰 넓어지고 까만 조가비들 달라붙은 갯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근처 바닷가에 낚시하러 온 강태공 둘은 낚싯대를 방치한 채 물가에서 뭔가 잡고 있기도 했다. 바지를 동동 걷어 올리고 물바닥 휘젓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에서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을 읽을 수 있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대자연의 아들로써 노는 인간의 욕

켜 먹고 섬을 빠져나왔다. 바다는 한낮의 햇빛을 받아 한층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산시내에서 <가고파>를 기념할 만한 건물로는 예전 합포구청 자리에 들어선 가고파문화센터를 꼽을 수 있다. 주로 청소년들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마산항 여객터미널에서 가까워 천천히 걸어가면 곧 도착할 수 있다.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쉬고 싶어 찾아갔더니 마침 휴일이라 개관하지 않았다. 입구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도 빌려본 책을 반납하러 오는 어린이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그리고 할매아구찜

어디를 가든 그 지방 고유의 토속음식이 있다. <가고파>의 고장 마산에도 예전부터 '고향의 맛'을 내는 유명한 음식이 있다. 바로 아구찜이다. 이왕 마산에 들렀다면 이 마지막 맛의 코스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가고파>의 바다도 아름답지

이왕 마산에 들렀다면 이 마지막 맛의 코스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가고파>의 바다도 아름답지만 항구도시의 깊은 맛을 내는 아구찜도 '먹고파'의 구실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만 항구도시의 깊은 맛을 내는 아구찜도 '먹고파'의 구실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아구찜은 아귀라는 바닷물고기와 콩나물이 주요 재료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비롯한 갖가지 양념을 첨가하여 그 독특한 맛을 낸다. 원칙적으로 '아귀찜'이라 불러야겠지만 그 본고장에서 '아구찜'이라 부르므로 그냥 아구찜으로 통용할 수밖에 없다. 아귀는 대가리가 넓적하고 입이 커서 험상궂게 생긴 놈이다. 그래서 요리를 해 놓아도 역센 가시와 뼈 때문에 먹기에 여간 고역이 아니다. 하지만 가시까지도 빨아먹으면서 뼈다귀를 자근 자근 씹다 보면 어느새 담백한 속 맛에 닿을 수 있다. 화끈한 매운맛 뒤의 개운함이 입안에 오래 남아 술꾼들의 식성에도 어울리는 음식이다.

마산의 아구찜을 맛보려면 오동동 아구찜 골목으로 가야 한다. 예전엔 허름한 재래식 집들이 모여 있던 곳인데 이 곳에도 어느덧 정화사업(?)이 벌어져 현대식 건물들로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다. 그 입구에 있는 '할매아구찜(오동동아구찜할매집)'이 가장 유명하지만 골목 안의 어느 집을 들어가도 괜찮다. 아구찜 일인분을 시켜 동동주와 함께 맛있게 먹고는 마산 시내를 벗어났다. 등뒤에서 <가고파>의 푸른 물이 끝까지 따라왔다. 🌈



마산의 토속음식
아구찜 골목